

개교 78주년 맞은 전북대

미래 100년 향한 새 역사 쓴다

개교 기념식 열고 성과·미래비전 발표 진행
우수 구성원·동문·협력기관 등에 포상

타지키스탄 “고등교육 교류 확대 기여”
양오봉 총장 명예박사 학위 전수식도 병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3일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타지키스탄 교육부와 타지국립사범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양오봉 총장의 명예박사 학위 전수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은 개교 78주년을 돌아보는 홍보영상 상영과 국경수 기적처장의 대학 성과 및 미래 비전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장기근속 표창, 미래인재상, 우수학과상, 자랑스러운 동문대상 등 대학 구성원과 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장기근속 표창에는 총 153명이 수상, 40년 근속자인 조남해 직원이 대표로 상을 받았다. 미래인재상 교원 부문 대상은 박찬희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 조교 학사지도 분야 우수상은 권혁빈 조교(언어교육부), 학생 문화인재 최우수상은 김세원 학생(공대 컴퓨터공학부)에게

돌아갔다.

직원 미래인재상은 시설과 시설2팀과 총무과 법무감사팀이 공동 수상했으며, 발전지원부 발전지원팀과 김선웅(학사지원과)·심양운(교무과) 직원이 금상을 받았다. 올해 신설된 감동행정상은 손은정 직원(발전지원부), 청렴 실천 공로를 평가하는 청백리상은 송진 직원(재무과)이 각각 수상했다. 우수학과 대상에는 공대 기계설계공학부가 선정됐으며, 연구처 연구진흥과와 교무처가 각각 성과관리·재정운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동문대상에는 전북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됐으며, 공로대상에는 D&G를 이정권 회장, 전북대학교 후원의집상에는 전세계 기념품타운 진군호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날 함께 열린 양오봉 총장 명예박사 학위 전수식은 대학의 국



13일 전북대학교 개교 78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 협력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였다. 양 총장은 최근 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전북대·타지국립사범대학 국제센터’와 ‘JBNU 한국어센터’ 개소를 성사시키고 교육·문화 교류 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와 타지국립사범대학은 2015년부터 학술교류 협력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25명의 교환학생을 배출했다. 이번 국제센터 개소를 계기로 양 대학은 2026년부터 매년 20명 이상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이며, 한국어·한국어 교육 공동 운영 및 공동학위제 추진 등 중앙아시아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타지키스탄 교육부는 “전북대가 중앙아시아 고등교육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한국-타지키스탄 교육문화 교류에 이정표를 세웠다”며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구성원 여러분과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교직원·학생·동문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사명감이 전북대학교를 성장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대학 사업과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 퍼지컬 AI 국가 주관 대학 선정 등은 우리 대학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AI 기반 교육혁신과 연구 경쟁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유치를 통해 개교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명상 통한 집중력·정서조절 능력 향상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인성교육 ‘마음별 프로젝트’ 추진
도내 중학교 1학년 대상 12월까지… 책임 있는 성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찾아가는 인성교육 ‘마음별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했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도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뇌과학 기반 4차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음별 프로젝트’는 △Stop(멈춤-집중, 알아차림) △Think(생각-관찰, 객관적 관찰) △Action(행동-실행, 의식적 선택) △Review(검토-성찰, 성찰과 성장) 등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 활동을 통해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뇌과학에 기반한 명상수업이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갈등 해결, 자기관리 습관 형성, 디지털 기기 사용 균형 등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자기조절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자기정체성과 지속성(자기관리 역량), 존중과 배려(의사소통 역량)의 전북 인성교육 핵심덕목을 함양해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경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찾아가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조절하고,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북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전강하고 행복한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해요(최우수) △교원임용시험 공증 교육영상으로 해결 응시자 부정 행위 OUT!, 불이익 ZERO!(우수) △도서관 협력 학교대출 서비스 시행으로 전북 학생 온(溫)책읽기 확산(장려) △단독 추진으로 좌초된 사업, 지자체와 협력 추진으로 되살려 지역 정주여

건 개선(장려) △공간, 자연을 다시 짓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학생 공간 리디자인(장려) 등이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 주요 대학과 협력 강화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 등 3개국 소제 7개 대학 찾아 협력방안 논의… TIFT 국제센터·JBNU 한국어센터 개소식 진행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다.

13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양 총장은 TIFT(타슈켄트국제금융기술대학), 기묘국제대학, 우즈베키스탄 국립국어대학, 타지국립사범대학,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카자흐 아블라이칸 대학 등 7개 명문 대학을 차례로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인 TIFT에서는 학생 교환, 대학원 진학, 공동 학위과정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전북대·TIFT 국제센터 개소식’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묘국제대학 및 우즈베키스탄 국립국어대학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학생 및 연구 교류, 우수유학생 전북대 대학원 입학 등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타지국립사범대학 방문에서는 ‘전북대·타지국립사범대학’ 국제센터와 JBNU 한국어센터 개소식 및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 대학과는 지난 2015년부터 교류를 이어오며 지금까지 25명의 교환학생이 전북대를 방문했다.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매년 20명 이상이 전북대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TIFT(타슈켄트국제금융기술대학) 국제센터 개소식.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또한 새로 문을 연 국제센터와 JBNU 한국어센터가 양국 학생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핵심 거점 역할이 될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타지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전성식 대사의 축사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양오봉 총장이 타지키스탄 교육부 및 타지국립사범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카자흐스탄에서도 주요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강화, 공동연구, 국제협력 프로그램 공동기획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2 학위제, 씬머, 윈터스쿨 운영, 석·박사 공동지도제 도입 등을 통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대는 이번 중앙아시아 대학들과의 협력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중앙아시아 방문은 전북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공동연구와 학문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추석 연휴 외국인 유학생 ‘안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WithU센터 등 기관과 협력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처음 명절을 맞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안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WithU센터(센터장 변호상), Goodwill센터(센터장 이흥기), 드림센터(센터장 양성은) 등 지역 유학생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9월 입학한 300여명의 외국인 유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3일 전주대에 따르면 긴 연휴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생활안전 비상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족사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담당 직원들이 매일 학생들의 생활관을 순회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병원과의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에는 유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송편 나눔, 세계 음식 만들기, 유학생 체육대

회(축구·전통게임), 과일 파티, 지역 문화체험(남원 일대), 김제 지평선축제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교 단독 운영이 아닌, 지역 유학생 지원센터와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WithU센터는 세계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재료 및 조리 공간을 제공하고, Goodwill센터는 봉사자 지원과 드림센터는 체육대회 운영과 통역을 맡아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통합돌봄 인력양성 재학생 연수 진행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1~2일 여수에서 ‘통합돌봄 인력양성 재학생 교육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형 교수와 재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통합돌봄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독과 돌봄’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특강, 학부생과 대학원생 간의 멘토링, 현안 토론 등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 조혜정 교수(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중독관리위원장)가 ‘중독과 돌봄, 전문가 역량’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중독 문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다루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할을 강조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멘토-멘토로 연결되어 통합돌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경험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을 총괄한 정규형 교수(RISE 통합돌봄 인력양성사업 과제책임자)는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통합돌봄의 중요성과 현장의 과제를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연수를 확대하는 등 통합돌봄을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도서관, ‘책·특·팝 독서 문화 팝업’ 14~23일 개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은 14~23일까지 중앙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책·특·팝 : 읽고, 보고, 즐기는 독서 문화 팝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책방과 대학, 지역민이 어우러져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잔디광장에는 지역 책방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가 설치돼 개성 있는 도서 큐레이션을 접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최신 도서를 바로 대출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또 전북대 창작동아리 ‘하늬’의 문집, 전주교대 책표지 리디자인 공모수상작 등 청년들의 창작물이 전시돼 젊은 감성과 창의성을 나누는 자리다.

아외 독서공간도 함께 조성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가을날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행사는 14~16일, 21~23일 각각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전주부설초,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총 학급 60명

전주 유일의 국립초등학교이자 2025년 18후보학교로 선정된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총 학급 60명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20~24일까지다. 원서는 전주부설초등학교 교무실을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선발은 추첨을 통해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전주부설초등학교 본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전화(063-284-3198)와 홈페이지(http://jts.es.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